

##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지 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선 혜 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한국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가슴기 살균제 사건,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자살, 우울, 불안, 분노,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담과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통합된 제도적, 정책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윤리 위반, 법적 소송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학회지에서는 상담정책, 상담윤리, 상담효과성에 대한 특별원고를 모집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번 호에 들어온 특별호 원고들을 토대로 상담심리학의 현재를 상담자의 진로문제, 상담자에 대한 처우문제,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문제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또한 상담심리학의 미래과제로 상담심리교육과정의 인증제, 상담수련에서의 윤리교육의 강화, 상담효과성 연구와 다학제적인 융합연구의 확대, 상담심리 관련 법 제정을 통한 국가수준의 상담시스템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필자들은 이번 특별호를 통해 상담심리학의 현재당면과제와 미래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심리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고자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상담정책, 상담윤리, 상담효과성, 상담심리학, 미래과제

†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306, E-mail: leesang@korea.ac.kr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등등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인류에게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 나쁜 변화인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담전문가인 필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명제만을 믿고 있다. 최근에 심리치료의 한 접근인 인지행동치료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심리치료가 태동했던 시기의 학자인 프로이드는 심리치료의 한 접근인 정신분석치료가 동시대의 아들러의 개인심리치료와 융의 분석심리치료보다 더 뛰어난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치료법이 더 우월하다고 논쟁하였다. 그 논쟁 이후 세월이 흘렀고 지금의 상담연구자들은 프로이드, 아들러, 그리고 융이 아닌 다른 형태의 다양한 치료법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치료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인지행동치료라고 할 수 있다. 증거기반치료(연구에서 효과가 증명된 치료)의 효시라고 불리는 인지행동치료는 측정가능한 행동적 치료결과를 중심으로 다른 치료법에 비해 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는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연 증거기반주장인지, 정말로 인지행동치료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더 상담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주장임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대부분의 심리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심리치료접근이 다른 심리치료접근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제심리치료연구지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에서 우수연구상(Honorary Paper Award)을 수상한 Wampold와 동료들(2017)의 원고를 살펴보면, 특정증상(예: 불안장애)의 경우 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메타연구들조차도 그 메타연구들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인지행동치료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효과성이 결코 낮지 않으며, 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심리치료분야에서는 도도새 판결(dodo bird verdict)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소설에 나오는 도도새는 물에 젖은 사람들이 옷이 마를 때까지 호수 주변에서 경주를 하도록 하고 승자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우승자를 가릴 때가 되자 누가 얼마나 오래, 멀리 달렸는지 관계 없이 “모두가 이겼으니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Rosenzweig(1936)는 이 일화를 차용하여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의 내현적 공통원인>이라는 논문을 통해 모든 심리 기법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어떤 특정 심리치료접근이 아닌 심리치료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치료관계와 같은 모든 치료법에 있는 공통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어떤 선진국에서도 심리치료 중 인지행동치료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정신건강을 위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이름으로 신경과/정신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심리치료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증거기반정책일까? 상담 심리학자인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지에서는 상담정책, 상담윤리, 상담효과성이라는 주제로 특별원고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총 8편의 원

고가 특별호에 실리게 되었고 그 원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호에 기고된 논문들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한 주제는 상담윤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최근 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우수한 상담자 교육과 그 책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상담 수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동이나 태도를 조사한 강이영, 금명자와 조민희(2018)는 2018년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중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38가지 사항에 대한 비윤리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정보 보호 및 관리의 측면에서 ‘수퍼비전을 위한 내담자의 동의’,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자 소진’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이영 등(2018)은 상담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상담자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자들의 직무현장이 다양화됨에 따라 특정 상담 분야나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윤리에 대한 연구들이 기고되었다.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직업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한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2018)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억압, 차별, 특권 등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사회정의 상담의 관점에서 진로상담자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활동을 촉진하는 학계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정의 및 옹호는 상담자의 역량 요소로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활동이 상담자의

주요한 직무와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진로상담자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전문상담교사들의 윤리적 갈등과 대처행동을 살펴본 정미라와 유금란(2018)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비밀보장과 같은 다양한 갈등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담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및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강수정과 유금란(2018)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상담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예: 부족한 관련 상담자 교육, 내담자의 저조한 사전 동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상담자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문적·윤리적 태도 및 행동 지침에 대한 학회 차원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 사회적으로 상담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의 효과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면서 상담자들은 자신이 진행한 상담의 효과를 입증해야 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상담 과정 및 성과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특별호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 3편이 게재되었다. 우선 이지영(2018)은 최근 기존 심리치료의 대안적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체험적 심리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체험적 접근 치료법인 포커싱 지향 심리치료, 정서중심치료 및 과정체험적 치료, 계슈탈트 치료의 개념과 원리를 개관하면서 체험적 접근의 핵심 치료 요인인 정서적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추후에 정서적 처리 과정 중에서 정서의 해소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나 정서적 체험 과정에 대한 측정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적으로 효과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상담의 효과성 연구에도 활용되었는데, 이은경, 송미경(2018)은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수용-전념치료(ACT) 집단상담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ACT 집단상담이 우울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크기(-.838)를 보이고 불안증상에 대해서는 중간크기(-.789)의 효과를 보이며, 이러한 치료적 효과는 집단이 7~8회기로 구성되었을 때, 실시기간이 4주 이하일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종학과 최보영(2018)은 경제적 관점에서 상담의 효과를 탐색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학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관련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대학상담센터의 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에 대한 지불 가능 액수는 내담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상담 경험이 있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및 상담준비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담정책과 관련하여 기고된 논문은 총 1편으로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연구한 김인규(2018)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관련 교육과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자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상담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김인규(2018)는 독점적 국가자격의 부재, 실무능력 훈련과 검정의 부족, 체계적 관리체제 부족 및 상담서비스의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자격의 기준 및 자격관리 체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담자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법을 제정하고 상담자격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한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의 시행과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상담자격을 연계하는 상담교육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번 특별호에 게재된 8편의 논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나 최근 상담심리학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각 해당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상담심리학의 현재

지난 시간 동안 상담심리학은 수적으로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10~20년 전만 해도 당시 전국에서 100명 미만의 상담전공자가 상담관련 자격증을 신청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매년 3~4,000명의 회원들이 자격심사에 응시하는 등, 현재 상담심리학회 회원이 3만 명이 넘어선 대형학회 되었다. 몇몇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만 명이 “심리상담” 전공자로 학부 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 모집이 잘되기 때문에(소위 장사가 잘되니) 우후죽순 심리상담 전공의 학부와 대학원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한 대학에서 수백 명의 상담석사 졸업생, 수천 명의 상담학사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심지어 아직도 신홍 학과와 전공 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의 예만 들어도 국내 유명대학에서 상담심리 전문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심리상담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담분야가 급성장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담 전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관되어 자기이해 및 성찰과 성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매력과 동시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비슷하게 상담전문가 혹은 상담 선생님이 라는 전문적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들이 함께 일하는 다른 전공의 동료에게 상담전문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면 ‘상담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직업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해준다. 본 특별호를 통해 편집자들이 논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다. 상담관련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따서 상담전문가라는 말을 듣는 것까지는 좋다. 원래 집안이 유복하여 자아실현과 심리적 웰빙(well-being), 만족 등의 이유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당장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이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현재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허무함과 동시에 분노의 심정까지 느끼게 만들고 있다.

상담관련 현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위해 현재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점검해보자. 먼저 상담자들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냉철하게 평가해보는다면 상담과 관련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인규(2018)의 원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에 고용된 소수의 상담자나 학교, 공공 기관(예: 학교에 고용된 전문상담교사)에 고용된 몇몇 상담자에 불과하다. 현재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안정된 상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현격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리상담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준)공공기관(예: Wee센터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대학 내 상담센터 상

담자 등)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단기계약직(2년)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최근에 OO대학 상담센터에서는 연봉 2,000만원 수준의 2년 계약직 상담자를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100:1이었다는 소문도 들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박봉과 열악한 환경마저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어떤 상담기관에서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사 학위급의 상담자를 2년마다 매번 교체하기도 한다고 한다. 같은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상담자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직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기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아주 소수의 몇몇 기관들은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의 근무 기간 후에 무기계약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곳도 있기에 필자들의 의견을 모든 상담기관으로 확대해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장의 원리로 볼 때 공급(상담 전공 졸업자)이 수요(상담을 받고자하는 내담자)를 앞서가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 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플랫폼이 상담 분야에 도입되었다. 몇몇 물지각한 자본가는 이 EAP 모형을 통해 5,000명 이상의 심리상담자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기업 혹은 관공서에서 상담서비스를 수주 받은 후, 상담자를 착취하며 돈을 번다. 이들의 이익 배분을 보면, 예를 들어 상담 사례 당 기업과 관공서에서는 7만원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상담자에게는 2만원만을 할당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이런 악독 EAP 업체만 있지 않고 몇몇 EAP

업체는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버는 돈을 최소화하고 개별 상담자에게 많이 환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이야기들을 조사해보면 상담소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만들어져서 자본가만 돈을 벌고 실제 상담을 진행한 개별 상담자들은 소수의 대가(2만원)만을 받고 일하는 형태가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필자들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슬프고 허무한 마음마저 들었다. 사실 상담사례 당 2만원이라고 하면 왔다갔다 차비와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것도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자격증이 없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상담 사례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필자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집단상담 리더 경험의 실습사례를 채우기 위해 돈을 주고 10명의 집단을 모집해 30시간의 집단 상담을 운영했다는 사례이다. 이 경우는 내담자에게 돈을 받기는커녕 내담자에게 돈을 주고 상담을 제공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담자에 대한 이러한 처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의 사안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갭(service gap)의 문제이다. 서비스 갭이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담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서(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Stefl & Prosperi, 1985), 이는 상담에 대한 인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즉, 심리상담에서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은 개인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데(김은아 등, 2018),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심리상담을 찾아오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 심리상담을 찾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으나 그 중에서 몇몇의 연구를 통해 일반 대중의 인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김종학과 최보영(2018)의 원고에서는 대학생이 1회의 개인상담에 약 15,000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대학생들은 상담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회의적이거나 결핍돌이 존재한다고(연구진, 이지미, 이수정, 이도형, 2016) 분석되었다. 연구진 등(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에 대한 무지나 정보 부족, 부정적인 간접 경험, 부정적 상담 경험의 영향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상담 경험은 상담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상담을 다시 찾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가 도출되었다. 한 개인의 상담 선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이전 상담경험”(장연미, 김희수, 2016; 김종학, 최보영, 2018)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양적인 확대(김종학, 최보영, 2018)뿐만 아니라, 일단 상담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경험이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게 하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상담의 전문성은 지속적인 수요의 창출 및 상담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그리고 결국은 상담자의 처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전문적인 도움 추구 여부를 결정하는 변인 중 한 가지는 바로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신연희, 안현의, 2005; Fischer & Turner, 1970). 그런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자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상담자로 만나는 상대가 얼마나 믿을만하며 나의 깊은 내면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이 원활하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어렵다.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우리는 쉽게 자격 기준을 떠올릴 수 있다. 즉,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담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규(2018)의 원고에서 제시된 상담분야 국가자격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검정형 자격과 전문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등 과정이수형 자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상담자들이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함께 존재하고 있는 2,517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8)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과 함께 '상담자격'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전문적인 상담자가 누구인지를 변별하는 단계에서부터 높은 장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상담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상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보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속적인 양적인 확산을 통해 상담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꾀할 것인가 또는 소수의 사례에 대한 질 높은 상담의 제

공을 통해 상담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것은 바로 상담자의 윤리 문제이다. 상담자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이나 특정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크게 원칙윤리(principle ethics)와 덕 윤리(virtue)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김봉환, 2013). 그 중에서 원칙윤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반면 덕 윤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상적인 상담자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김봉환, 2013).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최근 개정된 2018년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은 내담자와 함께 상담자를 보호하며, 수련 현장에서의 이슈와 정보 보호, 수퍼비전의 맥락까지를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강이영 등, 2018) 원칙윤리와 덕 윤리의 관점을 포괄하여 상담자의 윤리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의 문제는 강이영 등(2018)의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수퍼바이저와의 이중관계, 상담 관련 기록의 관리 문제, 상담자의 소진 등으로 대표될 수 있고, 강수정, 유금란(2018)의 연구에서와 같이 온라인 정보의 검색 및 관리의 문제 역시 더 자세하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미라, 유금란(2018)의 연구에서 학교상담자의 윤리를 다룬 것과 같이 특정한 장면에서의 상담자 윤리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상담자의 윤리 문제는 상담자로의 준비에서부터 상담자로 살아가는 전 기간, 즉 상담자 발달의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상담자의 역할 다양화의 맥락에서 상

담자가 활동하게 되는 여러 장면(예: 학교상담, 기업상담, 온라인 상담 등)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강령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상담심리학의 현재에 대한 논의의 내용이 결국 상담자에게 더 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김인규(2018)의 원고처럼 상담교육의 인증, 상담에 대한 행정규정 시행,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의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해결을 통해 힘을 얻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적인 자질과 힘을 키워가는 것이 먼저인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순환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별히 행정적, 정책적 논의와 관련된 내용은 본 원고의 미래과제 부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상담심리학의 미래과제

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 나중까지 남는 분야는 인간에 대한 심리서비스 일자리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리건강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상담심리 업계의 앞날을 밝게만 전망할 수는 없다. 솔직히 초창기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끼워 상담심리의 미래가 어두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최근 노동시장의 추세를 보면 한 기업, 한 사무실에 오래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외주하청, 프리랜서, 용역과 같은 이름으로 흩어져 일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담심리 분야 역시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신생 직업이기 때문인지 이와 비슷하게 계약직 용역, 프리랜서, EAP등의 이름으로 노동의 형태가 급진전되고 있다. 특히 현재 상담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심리업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질의 상담심리 직업은 점점 사라지고, 우후죽순으로 더 많은 상담센터가 생기고 사라지며,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은 충분한 자본을 가진 대형 EAP 업체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소수 상담센터, 그리고 막강한 지식자본을 가진 ‘유명한’ 상담 교육센터뿐일 것이다. 즉, 막강한 자본과 지적 기술을 가진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안타까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원리(수요와 공급)를 역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과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상담심리계의 미래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인식과 자정 작업이며 궁극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 상담자가 전문적인 역할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제대로 갖추어진 조건하에서 일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필자들의 생각에 대해 찬



반이 깔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생각을 모으는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과학계 보급되고 있는 상담 학위 과정의 개설을 지양해야 한다. 대학(원)생들의 성장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교양과목이나 교직과목을 통해 상담교육을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상담자를 양성하는 상담전공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내담자의 수에 비해 상담 전공자의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 학위 과정의 개설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깎아먹는 문제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또한 김인규(2018)가 제안한 바와 같이, 상담교육인증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몇몇 연구자들이 미국의 상담교육인증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를 제안하였으나(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김인규, 조남정, 2016, 김인규, 최현아, 2017)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담교육인증제도의 시행은 상담 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더불어, 수련기관인증제도도 중요한데, 즉, 임상심리학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담 수련기관의 자격, 수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여부, 상담 사례의 수 등을 심사하여 수련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손은령, 고흥월, 이순희, 2013).

둘째, 비공인 민간 자격증이 남발하고 상담 수련생들이 상담 자격증과 관련하여 혼란과

비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곽미용, 이영순, 2010), 학과와 수련 기관에서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김인규(2018)의 주장과 같이, 상담심리 관련 국가자격증 도입, 상담자격법 제정, 상담 활동에 대한 행정규정 시행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수련, 특히 수퍼비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예. ‘내담자의 동의 없이 수퍼비전을 받는다’,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다’, ‘공개 사례 발표 시, 다른 사람이 수퍼비전 받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다’, ‘상담 내용의 일부를 수퍼바이저에게 숨긴다’, ‘지도교수에게 수퍼비전을 받고 수퍼비전료를 지불한다’, ‘수퍼바이저가 과한 비용을 요구한다’)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수련과 관련한 윤리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강이영 등, 2018).

셋째, 상담의 효과성과 이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심리치료접근이 아닌 심리치료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공통요인, 즉, 모든 치료법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통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Wampold와 동료들(2017)이 강조한 바와 같이, 공통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증거기반 상담개입법을 선별 혹은 새로 개발할 수 있으며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상담 성과 연구는 대부분 적은 수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은경, 송미경(2018)의 원고와 같이 특정 개입법의 효과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거나 어떤 증재요인에 따라 치료효과에 차

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최근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융복합 기술과 연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상담 연구는 상담이라는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물론 이미 일부 연구자들이 의학, IT 등의 분야와 상담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와 다양성은 제한적이다. 상담심리전문가로서 우리만의 역량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있을 때만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보안을 통해 개별상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시장의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명시한대로 상담교육인증제도,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상담성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 마련 등과 같은 노력과 함께 학회차원, 더 나아가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상담 노동시장 실태 조사, 안정적 고용모델 개발과 홍보, 상담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예: 보험)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특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담자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상담자에게 법적인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권리(예: 임금과 지위 향상)를 보장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 관련법 제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김정진, 2016).

필자들은 누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곤 한다. 이런 일을 또는 이런 의견을 누가 먼저 제시해야 할까? 사실 이런 무거운 주제나 의견은 필자들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오늘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상담심리의 전망이나

진로를 고민하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필자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상담심리분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경각과 고민을 제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나친 양적 확대 그리고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어떻게 상담심리학계의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정, 유금란 (2018). 상담자의 온라인 윤리: 내담자 정보 검색 및 활용과 상담자 자기 개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575-600.
- 강연미, 김희수 (2016). 청소년의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 특성 연구: 도움요청장애요인과 위기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8(2), 237-252.
- 강이영, 금명자, 조민희 (2018). 상담 수련과정에서 비윤리 경험의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495-513.
-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 김봉환 (2013). 상담자 윤리 개요. 김현아, 공윤정, 김봉환, 김옥진, 김요완, 노성숙, 방기연, 이장호, 임정선, 정성진, 정혜정, 황임란 (편집),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2. 상담철학과 윤리 (pp.79-108). 서울: 학지사.
-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9(1), 87-111.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자격의현황과 발전방

- 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475-493.
-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 김인규, 조남정 (2016). 학부 상담교육 인증기준 개발. 상담학연구, 17(6), 87-104.
- 김인규, 최현아 (2017).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8(3), 43-57.
-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 김종학, 최보영 (2018). 대학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영향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663-687.
- 연규진, 이지미, 이수정, 이도형 (2016).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7(5), 243-267.
-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상담 및 직업상담: 상담자 역할과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515-540.
- 이은경, 송미경 (2018). 메타분석에 기초한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ACT(수용전념치료) 기반 집단상담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635-661.
- 이지영 (2018). 체험적 심리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 효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601-633.
- 손은령, 고흥월, 이순희 (2013). 한·미 대학상담 기관 운영 실태 비교. 교육연구논총, 34(1), 291-309.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정미라, 유금란 (2018).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541-57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8). 2018년 8월 21일에 <https://www.pqi.or.kr/inf/qul/infQuList.do> 에서 검색.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Rosenzweig, S. (1936). Some implicit common factors in diverse methods o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12-415.
- Steffl, M. E., & Prosperi, D. C. (1985). Barriers to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1(3), 167-178.
- Wampold, B. E., Flckiger, C., Del Re, A. C., Yulish, N. E., Frost, N. D., Pace, B. T. et al. (2017). In pursuit of truth: A critical examination of meta-analyses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27(1), 14-32.

원고접수일 : 2018. 0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15  
게재결정일 : 2018. 07. 31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Psychology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Eunha Kim**

Ajou University

**Ji-Yeon Kim**

Keimyung University

**Hye-Yon Se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cently, unpredictable disasters such as Sewol ferry disaster, toxic humidifier sterilizers case, earthquakes, and various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suicidal issues, depression, anxiety, school violence, and so forth led the Korean society to increase its demand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Despite increasing demands and atten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grated system and policy regulations related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refore, in practice, serious problems like violation of ethical code and lawsuits are occurring. At this point, to understand present and future tasks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to find appropriate strategies to cope, topics on counseling policy, ethics, and effectiveness of counseling were recruited in this special issue. In this paper, based on the manuscripts on this special issue, the present situ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was discussed by dividing them into career problem of the counselor, the treatment problem of the counselor,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unselor and ethical issues. Furthermore, as a future task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re are accreditation for counseling psychology curriculum, strengthening ethical education in counseling training, expanding counseling effectiveness research, expanding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and establishing legislation related to counseling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aims to open up a discussion that our counseling psychology should deal with by examining the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tasks of counseling psychology.

*Key words* : *counseling policy, counseling ethics, counseling effectiveness, counseling psychology, future prospects*